오동진의 씨네카페

'한반도' 촬영 마친 강 우 석 감독

"日과 해상마찰…현실재연 당혹"

7월초 개봉…한·일관계 등 민감한 사안 다뤄

제작비 130억 투입…할리우드 대작에 도전장

강우석 감독이 또 한번 대형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독도 분쟁 등 한·일 간에 해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군사 분쟁'을 담은 초대형 야심작 '한반도'가 촬영을 마친 것. 7월 초 개봉을 목표로 현재 한창 후반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강우석 감독과 얘기를 나눴다.

-소문에 의하면 남북한이 힘을 합쳐 일본과 제대로 한판 붙는다고 하던데.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정도만 얘기하겠다. 관객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속이 후련해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격한 반응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 단계에선 근미래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여겼다.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는 '픽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국가 정세 때문에 영화가 점점 논픽션화 되어 가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

-어쨌든 요즘의 한일관계와 흡사하다. 언제 기획한 영환가?

▲'한반도' 기획은 2년 전에 이루어졌다. 촬영은 작년 10월에 들어갔고. 조금씩 군국주의적 모습을 갖춰가는 지금의 일본과 계속 논쟁이 돼 왔던 독도문제, 교과서 사건 등을 보면서 앞으로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2010년대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촬영 기간 중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조금 당혹스럽다.(웃음)

-'실미도'에서 '공공의 적 1,2' 그리고 '한반도'까지 건드리는 소재들이 예사롭지 않다.

▲작품을 선택할 때마다 '새롭냐, 처음 시도되는 영화냐'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직접 만드는 영화뿐 아니라 기획이나 제작자로 참여하는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혈의 누' '오로라 공주'를 기획할 때도 새로움을 가장 눈여겨 봤다. '실미도'는 왠지 내가 찍으면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영화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물론 한일합방부터 거의 120년을 그린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다.

▲고종 때 국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가? 해방이 되면서 맥아더가 일본에서 그 국새를 다시 빼앗아 돌려줬다는데 한국전쟁 때 또 없어졌다. 문제는 한일 합방을 할 때 이 국새가 안 찍혔다는 거다.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프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을사늑약 전인 100여 년 전과 지금의 현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키 포인트다. 지금이야말로 100여 년 전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의 구성도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꾸몄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촬영 규모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해상 신이 특별히 많았을 것 같은데 해상 촬영들은 어떻게 했나.

▲실제 바다에 나가서 하지 어떻게 했겠나. 남해는 진해와 부산 사이에서, 동해는 포항에서 독도로 가는 방향에서 찍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떻게 해보면 스펙터클이 살 것 같지만 사실 컴퓨터 그래픽은 화면을 대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다 실제로 찍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한국영화 블록버스터 가운데 최고의 대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항상 큰 영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영화의 총 제작비는?

▲시작할 때 순제작비로 100억을 잡았다. 거기서 오늘까지 딱 96억2천만원을 썼다.(웃음) 홍보, 마케팅까지 다 합치면 120억~13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싶다.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MI3' 돌풍 한국 극장가 '날벼락'

개봉 3일째 전국 165만 관객 모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 편에 한국영화들이 '박살'이 났다. 지난 3~5일, 황금의 연휴 동안 말 그대로 황금을 손에 쥔 영화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3'였다.

이 영화는 서울에서만 41만여 관객을, 전국적으로는 무려 165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이 정도면 '돌풍' 혹은 '태풍'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 싶다. 한국영화로서는, 특히 '사생결단'과 같은 영화로서는 '벼락'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해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미션 임파서블 3'를 위해 배급사인 UIP코리아는 전국적으로 무려 460개의 스크린을 열었다. 전국 308개 스크린이었던 '사생결단'은 배급력에 있어서도 결국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미션 임파서블 3', 흔히들 'MI3'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 당분간 순항에 돛을 단 듯 블록버스터 시즌의 초입기를 순조롭게 보낼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더 이상의 경쟁작이 없는 현실에서 'MI3'는 아마도 400만 고지는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굳이 400만까지만 끊는 것은, 18일에 그 유명한 '다빈치 코드'가 개봉되기 때문이다.

'다빈치 코드'의 위력은 현재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 내용이 공개된 해외에서는 이미 폭풍이 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극장가에서도 일정 정도의 회오리가 예상되며 그렇다면 5월 한달은 완전히 할리우드판이 된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영화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부천영화제 파행 끝 정상 가동

이장호 위원장 체제…7월 개막 앞두고 거듭나기 안간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이장호·사진)가 새롭게 태어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부천영화제는 지난 해 전 김홍준 집행위원장 해촉 사건으로 국내외 영화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외면을 받으며 파행을 겪어 왔다.

그러나 올 부천영화제는 과감한 조직 개편을 시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화인과 실무자가 중심이 된 집행위원회와 지역인사 중심의 조직위원회가 권한을 분담해 조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장이 당연직으로 조직위원장직을 겸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총회를 통해 선출, 위촉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올해 부천영화제는 약 35개국, 250여 편의 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세 감독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등 한국영상자료원과 손잡고 명작 한국영화의 원본을 복원, 소개하는 '한국영화 디렉터스 컷 특별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 컬트영화의 대부 '이시이 테루오 특별전'도 마련한다.

또 '이탈리아 공포영화 특별전' '자크 타티의 모던 코미디 특별전' '라이브 음악으로 부활하는 프리츠 랑 특별전' '은막의 천사 오드리 헵번 특별전' 등 특별전의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해외 영화계 이슈

사우디 아라비아, 영화 대혁명

사상 첫 장편 '케이프 알 할' 제작…대중문화 새바람 예고

가족이외에는 여성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여배우가 한명도 없고, 전국에 영화관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중문화란 것이 사실상 부재한 나라에서 과연 영화문화가 싹틀 수있을까.

전세계에서 여성인권이 가장 억압받고 있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사상 최초로 장편상업영화가 만들어져 올여름 개봉을 기다리고 있기때문이다.

화제의 작품은 '케이프 알 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기로 악명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화란 점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 신구세대의 갈등 등 사우디 내부의 갈등을 비교적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영화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그동안 사우디에서는 정부의 억압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침묵의 억압'이나, 바레인까지 자동차를 몰고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한 영화광을 통해 개인의 자유문제를 다룬 '시네마 500km'란 단편영화가 제작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모두 불법으로 제작돼 은밀하게만 상영됐다는 점에서, '케이프 알 할'은 사우디 최초의 상업장편영화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화는 대학졸업을 앞둔 사하드란 20대 초반의 여성을 중심으로 현대화와 전통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 간의 미묘한 갈등을 그리고 있다. 트리뷴은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디 흔하게 다뤄져온 이런 주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번도 공개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영화의 개봉이 성사된다면 사우디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우디 최초의 여배우가 탄생됐다는 점도 획기적인 부분이다.

'케이프 알 할'의 제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 왕가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꼽히는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제작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여성 주민등록증 발부 및 투표권 인정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첫 상업영화의 개봉을 계기로 대중문화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정우부동산랜드
☎(代)671-0923 핸 011-607-2213
(진월동 대성여고입구 동성고후문사이)
상업지역 130평 급매
·월산동 40M 도로접 단층주택(직사각형) 평당600만원 35M×40M도로부근
소태동 G/B 전,임야 6850평매도
·2차순환도로 T/G부근(전1600평 건축물1동)부지, 기도원적합 평당2만5천원
나주 관정동 배밭 1900평
·15년배 대량식재됨 평당 13만5천원
나주 용산동 생녹지 587평
·외국어고앞 (답)생산녹지농로접 평당 8만5천원
전원주말농장 및 투자용 밭 관리지역
·화순 도곡 원화리 285평 평당 27만원
·화순 도곡 원화리 455평 평당 29만원
그린벨트임야 21000평 매도
·남구 도금동(대촌칠석옆)북향·외곽계획도로접 평당2만5천원
주말농장 및 묘지용 410평
·화순읍 세량리(칠구터널부근) G/B밭(남향, 계곡) 평당12만원
가족묘지用 임야 408평
·광산 내산동(관리지역) 차량진입,남향 평당12만원
가족묘지用 야산 900평
·함평 학교 곡창리(영산강주변, 야산, 관리지역) 평당3만5천원
주거지 245평 매도
·운남동부근(12M도로접) 평당190만원 원룸, 교회, 창고적합
묘지用 임야 3800평 매도
·광산 송학리 관리지역 임·답 평당35000원
장성 개간밭 4270평 매도
·황룡 필암리(필암서원부근 증산마을입구) 개간밭 평당2만6천원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한글주소: 정우부동산 을 클릭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
☎(代)962-7100 (핸)010-4325-1323
(신창지구 신가중학교 옆)
장성지역
▶공장부지,물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접
◉대지-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48평
매매가-12억(절충가능)
*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 구함.

대인부동산
FAX 373-6665
교환전문
모텔·목욕탕·빌딩 ➡ 상가·대지
산·아파트 ⬅ 논·밭·주택
011-684-7774
땅매매
◉송정동 사리병원앞
·4차선 도로접 사거리코너 대지 400평 평당250만원
◉산정동
·하남택지지구뒤 현8m도로접 6차선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750평 평당 70만 공장, 창고, 판매장 적합
◉연제동
·대주아파트 정문앞 상업지역 200평×400만4차선도로접(상가,병원적합)
011-625-0510
교환
모텔·임야·땅
교환물건구함
016-9630-6699
매매(교환가능)
◉원룸(3층) 급매
·풍암동 대95평 건170평
·보9천 월330만원 포함
·매매가 5억
019-649-5548

엑스포공인중개사
☎(代)351-5155,010-9455-2200
(월산동 남광호텔에서 죽봉터널 중간사이)
서구
▶서구 풍암동 상가매매
대:68평 건:148평 1층:보증금/3000만원 월 120만원 2층:보증금/1500만원 월 80만원 3층:보증금/1000만원 월50만원 보증금:6500만원 월330만원 융자:1억5천만원 매매가:4억5천만원
▶일반상업지역 매매
185평 평당500만 광천동 터미널옆 농협앞 큰대로변 병원 상가 사옥부지 최고요지
광산구
▶광산구 우산동
답:707평 매매가:평당43만원(투자적합)
북구
▶북구 두암동타사거리 상가매매
대지 150평 건평 90평 1층보증금1억300만 1층 2000만 200만 최고상권 매매가:12억
남구
▶월산동 남광호텔사거리 상업지구
대130평 당600만 병원 삼사 사옥 최고요지
▶월산4동 2층상가 주택매매
대지38평 1층 점포2칸 2000만 월50만원 2층주택 방3개 입식 거실 리모델링 하였음. 매매가:1억2천5백
▶월산동 외각대로접 준주거지역
사옥병원교회빌딩 105평 당550만
▶동구 동명동 조대앞
큰도로접 대지 110평 당450만 빌딩사옥 상가 병원 최고요지
나주시
▶나주 다도면 풍산리
답270평 당12만(4면도로접/농업지역) 답360평 당12만(30m 도로접)
답400평 당30만(삼거리, 코너도로접)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공장매매 대지 220평 건평 80평 주택 30평 매매가 1억2천5백만원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공장매매
대지1040평(냉동창고/250평 공장/300평) 융자 3억2천5백 매매가 6억5천
▶함평군 엄다면 송호리
공장부지 전3800평 평당55000원
▶장성군 남면 녹진리
전원주택용 1200평 투자적합 매매가1억1천만원

아름다운부동산
무료 ☎080-729-4989 010-3162-4989
상가건물
•상무지구 보증금 3억원 월세 720만원 매매가 17억원
•북구 신안동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 매매가 7억5천만원
모텔매매
•상무지구 객실 40개 보증금 3억5천만원 월세 1,100만원 매매가 21억5천만원
병원부지
•상무지구150평 200평 460평 하남2지구 24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공장부지
•담양군 대덕면 소재지 관리지역 임야 14,000평 매매가 평당 10만원
전원주택용지
•광산구 오운동 산아래 대지170평 매매가 3,700만원
물류창고용지
•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앞 2차선 도로접 답700평 매매가 평당 90만원
묘지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임야500평 매매가 평당 15만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첨단중심 상업지역
·정부지방청사 예정지앞 200평
·부영·호반◉정문부근 145평, 135평
·신가동 상업지역 100평 화원, 음식점 적합 투자유망 230만원
자연·생산녹지 매매
·도천동 328평 9번도로 인근 도로접
·광산구 도천동 진입로 8m도로 700평 공장, 창고 물류지 적합
첨단 원룸 건물급매
·대72 건145 원룸15개 투룸3개 쓰리룸 1개 보1억1천만 월490만 매5억 조정가
첨단 아남전자 인근 투자지
·장성, 남면, 진원면 담양 대전면 급매물 다량 상담환영
상가건물
·대70 건110 보9천만원 월160만 매매 4억(조정가) 호반2차 미라보◉입구 월계초교앞
·대80 건200평 보9천5백만 월5백8십만 융자3억5천 매8억
첨단 인근 자연·생산녹지
·북구 지야동 30m도로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물류공장최적 440평
·북구 삼소동 30m도로접 아남뒷쪽 2000평 분할가능 가든, 공장, 물류최적
경관좋은 종교용 최적지
·곡성 옥과면에서 5분거리 종교, 휴양, 복지시설, 물과산 아주좋음 17000평 매매14억
자연 준공업지역 급매
·지죽동 준공업지역 4차선도로접 680평 72만 공장부지 투자 적합
·소촌동 자연녹지 도로접 2700평 57만 공장부지 종교부지 투자적합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물
◉7억9천 말바우 상가 매매
20×8m코너 보1억8천 월500만원
◉용봉동 10억 고시원 급매
대100평 건200평 룸70개 월세1500만원 수익있음
◉13억9천 빌딩 20×10m 코너
전대 후문 대110평 건320평 보3억3천 월900만
◉17억1층 점포 12칸 빌딩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1억 상업지역 빌딩
대150평 건600평 보증금4억5천 월세1,400만원 포함
◉33억 상업지역 빌딩
대175 건540평 보증금3억 월세2,800만원
◉49억 빌딩
보증금 17억 월세2700만원
◉65억 상업지역 빌딩
대570 건1,650평
주유소 전문중개
◉시내 8억주유소 급매
대280 건평 약50평 보5천 월440만원포함
◉10억 주유소
땅1,200평 가든포함
◉11억5천 시외 주유소
가시식당 카센타 포함 2000평 장사잘됨
◉13억 시외 주유소 급매
대200평 일매출 800만-900만원
◉17억 시외 주유소
대1,800평 휴게소 포함 건200평 하루 매출 1,200만원-1,3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550평 평당 600만원
◉360평 평당 850만원
◉140평 평당 900만원
◉270평 평당650만원 APT 7000세대 상권
◉9억 전원카페 대700 건160 교환가능
매매교환
◉8억9천 목욕탕 교환 매매
대135평 건370평 1층 점포5칸 주인직영
땅
◉광산구 자연녹지 2300평
평당 160만 점포 약 20칸 건물있음
◉창고부지 200평
각화동 평당 145만원
◉곡성 섬진강변 5000평
별장, 연수원부지 관리지역 평당 7만원
◉담양 임야
15만평 평당 1만원
◉고창 선운사 부근 10만평
평당 15,000원 교환가능 밭 2만평포함
◉순창 임야10만평 평당5만원
◉화순 12만평 임야 평당8000원
◉7억5천 창평 임야5만5천평
약1만평은 경사도완만, 토목사업완료 미니골프장가능, 수련원부지, 절터, 농장 가능
◉곡성 농장 2만평 6억5천
◉관리지역 임야 7000평
담양 평당8만7천원 진입로 있음 경사도15°
◉공시지가 보다 싼땅 오피스텔 부지
오치 170평 평당 145만원 공시지가 평당165만원
◉오피스텔부지 300평
평당190만원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각화동 자동차공업사 부지 500평
평당 160만원 상업지역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평 남향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신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평당4만원
◉23억 종교시설 연수원 실버타운부지
12만평 건물 600평, 해남 60만평
◉자연녹지 3000평 급매
35m도로접 차고지 택시회사 정비공장 적합 평당120만원
◉북구 상업지역
500평 평당290만원 구획정리 완료
창고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대1000평 창고5동 포함 7억5천 보3500만 월세450만
A3000세대 정문 점포주택
대65 건53 1층 점포4칸 보1억 월130만원 매매 3억9천(2층 주인거주 가능)

부동산114 광산공인
☎062)962-3114
018-630-7800,011-295-8394
(www.R114.net, 신창동 국민은행지점 건너편)
신창지구 토지매매(다량보유)
▶근생 150평당 650만
▶상업용지코너 137평당 750만
▶일반주거 65-75평당 250-350만등
수완지구 토지매매(다량보유)
▶근생, 상업, 준주거용지 매매가능
▶이주자택지 아파트밀집 대로변코너 75, 89, 95, 102평 당290-400만등
▶협의자택지 아파트밀집 대로변코너 74, 88, 96, 106평 당195-250만등
투자용, 사업성 토지(다량보유)
▶나주시 임야 약4000평 4차선 70m접 관리지역 공장, 물류, 주유소 등 매8억
▶장성군 임야 5만5천평 큰도로접 당8천 관리지역 문중, 공장, 물류, 투자용 적합
▶신정동 대,전 생산녹지 700평당 120만
▶신정동 전 생산녹지 600평당 75만 다량
수익성 상가건물 매매
▶북구 지하1층 지상6층 60억 직영 년순수익 18~22억 예상
▶북구 지상4층 고시원 7억5천 직영 년수익 1억3천 예상
▶화순 능주 잠정리 공장 대지 4000평 건평 1400평 매매가 14억2천
▶신창동 근생 지상5층 15억 보2억 월차임 850만
▶상가건물 3억5천-20억 다량보유
▶완도 중앙리 모텔 지상5층 10억 1,2층 사우나 3,4,5층 모텔
공장, 물류, 주유소 부지 등 구함
(매수, 매도, 상가임대 상담환영)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네트워크 회원업소 항상 고객을 베스트로 모시겠습니다